원성진 "만년 2위 꼬리표 떼겠다"

이세돌 잡고 입단 9년만에 본격 기전 우승 도전

내달 17일부터 강동윤 7단과 천원전 정상 격돌

'원펀치' 원성진이 '만년 준우승'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

지난 1998년 입단 이래 프로 9년째를 맞고 있는 원성진 8단이 본격기전 우승을 노리고 있다.

그는 프로 입문 당시 최철한, 박영훈과 함께 '송아지 삼총사'로 불리며 바둑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지만 정상의 언저리만을 맴돌았을 뿐 한번도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마스터스 서바이벌에서 우승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일반팬들에게는 생소한 비공식기전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원 8단은 '만년 준우승'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달고 다녔다. 싸움을 즐기는 기풍 때문에 '원펀치'라는 별명도 갖고 있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단골 준우승'이 전치사로 놓여진 게 사실.

그가 최근 '대마' 이세돌을 잡고 제12기 박카스배 천원전 정상을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있다. 그는 최근 스카이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이 대회 준결승전에서 이세돌 9단을 277수 만에 흑 5집 반으로 제압, 결승행을 확정지었다.

원 8단으로서 천원전 결승 무대는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 8기 대회 결승에 올랐던 원성진 8단은 당시 최철한 6단에게 3-1로 패해 준우승에 머무른 바 있다.

이세돌을 따돌린 원 8단은 결승에 선착한 강동윤 7단과 오는 11월 17일부터 5번기를 갖는다. 강동윤 7단마저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면 본격기전 첫 우승을 달성하게 된다.

원 8단이 상대전적에서 4승1패로 앞서 있지만 강동윤의 상승세도 만만치 않아 승부는 반반이다. 강동윤은 올해 전자랜드배와 신예연승최강전에서 우승한 바 있다.

그러나 원 8단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홀가분한 느낌이다. 이미 자신에게 2번의 아픔을 안겨줬던 비씨카드배 징크스를 털어낸 때문이다.

박카스배 천원전의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에 40초 초읽기 3회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영남일보·제일화재 선두권 굳히기

한국바둑리그, 각각 한게임·대방 꺾고 1, 2위 지켜

영남일보와 제일화재가 선두권 굳히기에 들어갔다.

지난 10~14일 열린 KB국민은행 2007 한국바둑리그 12라운드 1, 2경기에서 영남일보가 한게임을 3대1로, 제일화재가 대방 노블랜드를 3대2로 제압했다.

영남일보는 후기리그에서 신성건설과 KIXX에게 2패를 당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12라운드에서 주장 이영구에 이어 홍민표, 허영호가 승리, 한게임을 손쉽게 따돌렸다. 영남일보는 리그전적 9승 3패를 기록, 포스트 시즌을 예약했다.

제일화재는 대방노블랜드에게 첫날 2승 1패를 거둬 여유있는 모습이었지만 믿었던 이세돌이 루이나이웨이에게 져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제일화재 서건우가 윤성현을 불계로 제압, 리그 8승 4패로 2위를 굳건히 지켰다.

정규 시즌 10경기를 남겨놓은 현재 개인 성적에선 강동윤(울산디아채)이 9승1패, 유창혁(월드메르디앙)이 8승1패로 1, 2위를 기록 중이다.

KB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일정 확정

KB바둑리그의 포스트 시즌 일정이 확정됐다.

현재 영남일보가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제일화재 및 중위권 팀들의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올해 정규리그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정규리그를 마친 후 상위 4개 팀이 격돌하는 포스트 시즌은 12월에 개막한다. 준플레이오프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계속되며 14일부터는 플레이오프가 진행된다. 대국시간은 오후 7시와 밤 9시.

팬들의 이목이 집중될 챔프 결정전은 3번기로 펼쳐진다. 1차전은 19~21일 오후 7시, 2차전은 23일에 열린다. 2차전의 무대는 서울이며 장소는 미정. 3차전까지 진행될 경우 28일~30일 사이에 속개될 전망이다. 한국바둑리그 최종 우승팀 상금은 2억 5천만원(준우승 1억 5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벽안의 기사들 "묘수 없나?" 지난 15일 경기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제2회 국무총리배 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세계 각국의 아마추어 바둑 선수들이 묘수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훈 "이세돌 나와라"

조한승 누르고 GS칼텍스배 도전권 획득

박영훈 9단이 국내 2위 기전인 GS칼텍스배를 놓고 이세돌 9단과 패권을 다툰다.

박 9단은 최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2기 GS칼텍스배 본선리그 마지막 대국에서 조한승 9단에게 백으로 불계승을 거두고 7전 전승으로 리그를 마감했다.

이로써 박영훈 9단은 타이틀 보유자인 이세돌 9단과 결승에서 5번기를 갖게 됐다.

박영훈 9단과 이세돌 9단간의 상대전적은 7승 10패로 박 9단이 밀리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두 기사의 대결은 이 9단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있으나, 최근 10대국 성적은 5승 5패. 2005년 이후 4대국 성적은 박영훈 9단이 3승 1패로 앞서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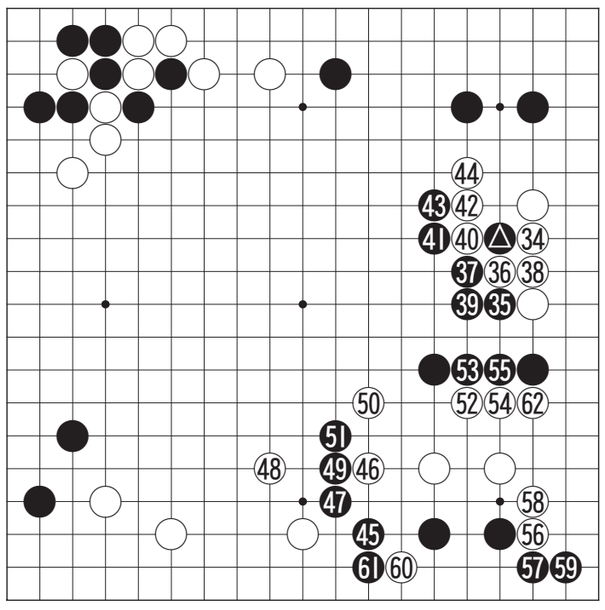
제1회 광주시 바둑협회 회장배 바둑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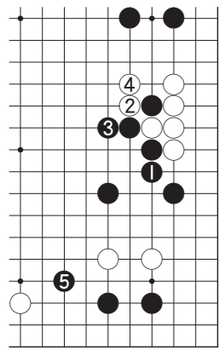
헛 수고로 돌아간 노림

3보(3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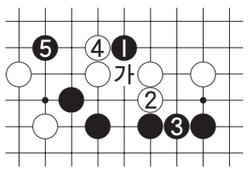
최강부 준결승 2국

白 심재욱 6단 黑 노기철 5단





〈참고도 1〉



〈참고도 2〉

흑 ▲는 싸바르기를 할 때의 상용수법으로, 아래쪽 백 두점을 공격하기 위한 사전공작이다. 흑 39로 이은 것은 다소 의문이었다. 아래의 백을 공격할려면 이 수는 '참고도1'의 흑 1로 느는 것이 낫다. 3을 선수한 다음 5로 공격했으면 백이 상당히 괴로웠을 것이다.

흑 45로 백 두점에 총부리를 겨눴으나 다음에서 보다시피 백 52,54 등이 선수가 되어 쉽게 모양을 갖추고 있다.

흑 49도 책략이 부족했다. 이 수로는 '참고도2'의 흑 1로 들여다 보아 응수를 물어볼 찬스. 물론 '가'로 이어만 준다면 백이 무거워져 좋고 백 2로 받으면 3에 이어 실리로 상당한 이득이다. 그런 다음 다시 5로 추격할 수 있다. 위쪽의 흑 세력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전은 흑 51로 우직하게 공격했으나 백 58까지 선수하고 62로 쉽게 살아 흑의 노림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백이 위아래에서 실리를 챙긴데 비해 흑은 한 일이 없어 보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김혜민 5단, 오랜만에 활짝 웃다

여류국수전 조혜연 꺾고 8강

김혜민 5단이 오랜 만에 웃었다.

김혜민 5단이 지난 15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3기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 본선 첫 대국에서 조혜연 7단에게 287수 만에 흑 반집승을 거두고 8강에 올랐다.

김 5단은 지난 2000년 이후 조혜연 7단과의 상대전적에서 1승 6패로 밀린 끝에 모처럼 승점을 올렸다. 그는 지난 2007년 6월 열린 여류명인전 본선에서도 조혜연 7단에게 발목을 잡혀 무릎을 꿇은 바 있다.

반면 조혜연 7단은 김 5단에게 밀려 16강에서 탈락함으로써 7년 연속 여류 국수전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